

새사람

WEEKLY

no.01

새사람
행진

icla
행동하라



Birds and People's March

for the Cancellation of
the Saemangeum New Airport



1주차 행진 경로

8.17 일 검은머리물떼새의 날 서천역-서천군지원보건진료소(12.7km)

서천역 - 현대오일뱅크주유소 - 문장3리마을회관 - 문산사거리 (점심) - 서천군지원보건진료소

8.16 토 가창오리의 날 금강호 휴게소-서천갯벌(11.2km)

금강호 휴게소 - 금강갑문교 - 김인전공원주차장1 - 벨리하우스 - 동백대교 아래 (점심) - 한솔제지 맞은편 주차장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서천갯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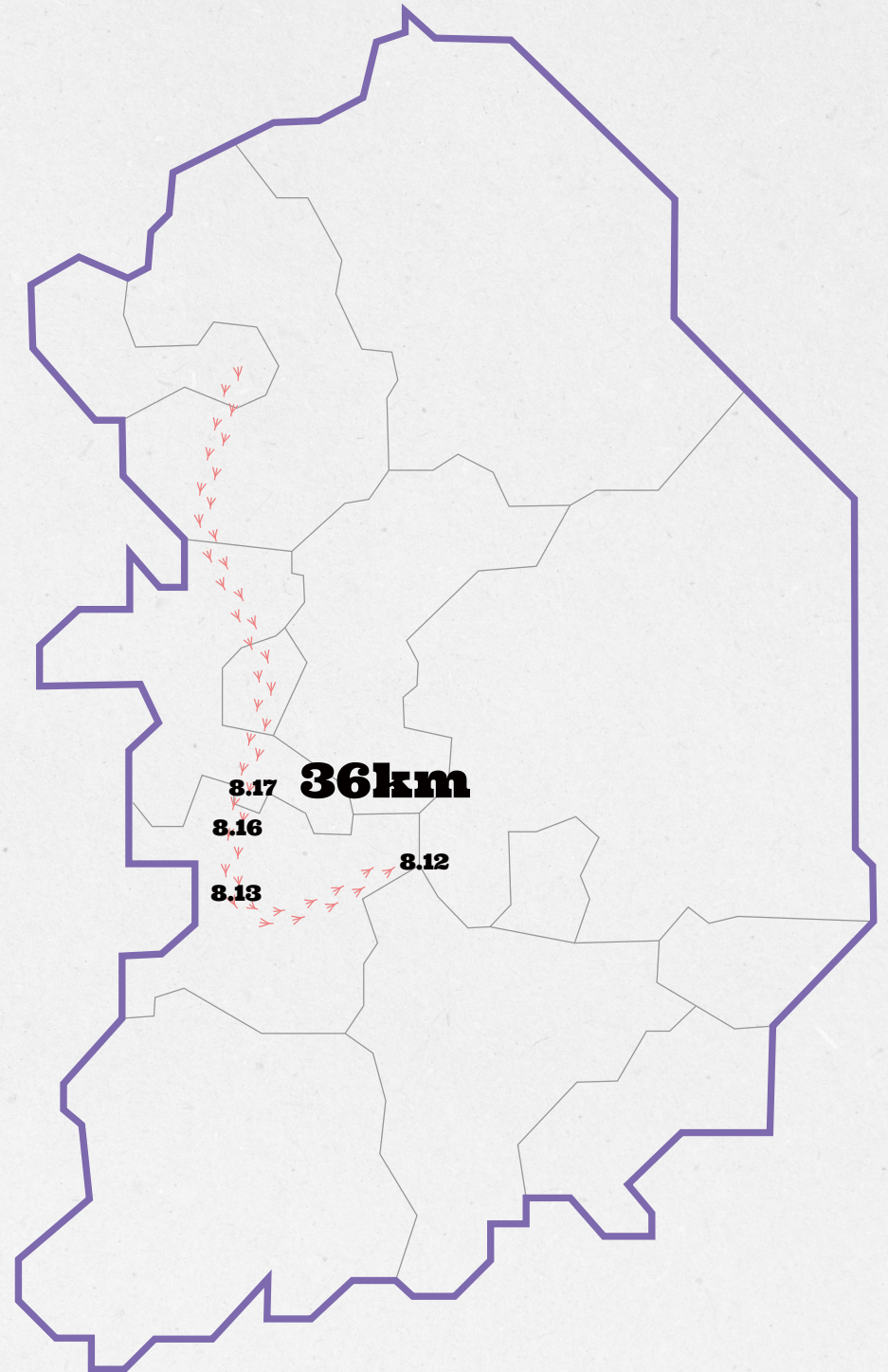
8.13 수 저어새의 날 수라갯벌-새만금개발청(4km)

수라갯벌 - 새만금개발청 +수라갯벌 행진단 선언+

8.12 화 큰뒷부리도요의 날 전북지방환경청-만경강 삼레교(8km)

전북지방환경청 -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 (점심) - 만경강 삼레교

+새,사람행진 출발 기자회견+





8 들어가는 글 _ 박영길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 1 - 응답

10 일곱째별의 새,사람행진 0 프롤로그
새,사람으로 가는 길

250812 큰뿔부리도요의 날

40 수라의 외침 _ 딸기
44 <새,사람>의 외침 _ 알알이 멸종위기 사랑을 구하기 위해
46 새,사람행진기 1 _ 알알이 새,사람이 온다

250813 저어새의 날

60 수라의 외침 _ 딸기
62 <새,사람>의 외침 _ 완두 우리는 행진합니다
64 일곱째별의 새,사람행진 1 큰뿔부리도요와 저어새가 되어

250816 가창오리의 날

80 수라의 외침 _ 딸기
82 <새,사람>의 외침_ 가지가지 하늘공중에 새가 된 두 사람을 생각합니다

250817 검은머리물떼새의 날

90 수라의 외침 _ 딸기
92 행진노래 함께해요 백지화

94 REFLECTION _ TONY Walking in-between worlds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 1 - 응답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 취소 소송 판결을 앞두고 <새,사람행진>이 시작했다. 전쟁, 개발, 파괴에 맞서 평화의 순간들을 만들어 온 ‘평화바람’이 이번엔 수라갯벌의 뭇생명들과 함께 행진에 나선다는 소식에, 2022년 3월 ‘다른 세상을 만나는 40일 순례 봄바람’이 떠올랐다. 봄바람 순례는 윤석열 정권의 출범과 함께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세상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는 외침을 안고 전국 38개 지역, 95곳의 투쟁현장을 찾았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권의 불법 비상계엄사태를 극복하는 와중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새만금 신공항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중이다.

살다 보면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목소리가 있다. 우리 곁에 생명이 살아 있음을 일깨우고, 그 생명들에게 닥친 현실이 우리의 미래일 수 있음을 알려 주는 목소리다. 우리 활동이 이대로 괜찮은지 묻는 그 외침에 마주하고 답해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

왜 우리는 이런 외침에 응답해야 할까? 단순한 공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흔히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책임지는 ‘주체성’을 꼽는다. 오랫동안 주체성은 신 앞의 단독자로서 어떤 절대적인 것에서도 스스로 홀로 서는 것이라 여겨져 왔다.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그러한 홀로서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매우 위험할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어떤 개인도 완전히 독립해 설 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만의 확신으로 내리는 결정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근대적 이성의 핵심이랄 수 있는 이러한 개인들의 주체성들이 결국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였다면 우리는 이제 주체성을 다르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점점 더 홀로 선 개인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다.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기필코 누군가 혹은 무엇들과 관계 맺어야만 하는 복잡한 관계성 안에서 사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쩌면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군가 혹은 무엇들과 관계 맺어진 다중성이 담보된 주체적인 것들로 편입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삶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면, 나의 주체성은 어떠한 것들에 속하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에 내부로 침잠해 들어가기보다 적극적으로 외부와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해 생기는 어떤 파열음을 몸속에 새기는 것이야말로 나의 주체성을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수한 생명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와 관계 맺고, 생명을 유지하며 어우러져 지낸다. 그런 관계망이 훼손되지 않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불러낼 주체적인 삶의 현재이자 미래가 아닐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제 방식대로 살아가려면 서로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관계를 맺는 일이 필요하다.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는 길이다. 수라갯벌의 뭇생명들과 함께 평화바람이 외치는 목소리를 듣고, 함께 걸으며,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법이나 정치권 등 외부에 의탁하는 것이 아닌 당당하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다.



**법이
큰뒷부리도요를 살릴 수 있을까?**



문정현 신부님의 오른손

©일곱째별

새,사람으로 가는 길

신부님의 손 2025년 7월 8일 화요일 천막 농성 1249일

정오가 막 지난 전주 전북지방환경청 앞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천막 농성장. 완두와 가지가지와 샘이 땡벌 아래 피켓을 들고 점심 선전전 중이었고, 문정현 신부님은 무더위 폭 절인 상태이셨다. 벌써 석 달 넘게 평일 매일 새벽 여섯 시 반이면 조반 드시고 나오셔서 아침 8~9시 출근 선전전, 점심 12시 전후 한 시간 점심 선전전, 오후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퇴근 선전전을 하시고 들어가시니 과로이신 데다가 천막의 더위는 40도를 웃돌고 있었다.

선전전 후 도시락 식탁에서 일어나시자마자 조립식 나무 평상 위에 몸을 누이신 신부님은 금세 오침에 드셨다.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우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뛰었다. 진열해 놓은 신부님 서각들을 천막 안으로 옮기자마자 천막 위 덮개 타프에 물이 고여 내려앉았다. 셋은 우산 끝으로 타프를 올려 물을 떨어내려 했다. 우왕좌왕 소동과 우박처럼 쏟아지는 빗방울 소리에 어느새 신부님이 눈을 뜨고 앉았다가 일어서계셨다. 책상을 옮겨 그 위에 올라가서 타프 위 물을 쏟으라고 하셨지만, 그 음성은 빗소리에 묻히고 말았다. 세 장난꾸러기는 신부님 말씀엔 아랑곳하지 않고 동심으로 돌아가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지독하던 더위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비가 개자 흑시나 하고 신부님께 여쭙보았다. 부탁드린 서각이 완성되었는지. 아... 누구라도 내 삶에 와 주실 다정함이 절실해서 부탁드렸던 그 말씀, 지해서 1장 6절

'지혜는 다정한 영'

오랜 세월 서러움이 토닥여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신부님의 손이 내 눈에 쏙 들어왔다. 서각 기도하시며 굳은살이 배기고 벗겨지기를 반복해 온 거칠고 고결한 손이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는데 지난 5월 30일 금요일, 세종시 한누리교 아래 세종보 천막 농성장 미사 때 뵈었던 대전 교구 분들이 오후 다섯 시 미사를 드리러 네 시부터 오셨다.

미사 후 김지은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미사 때부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던 그녀는

말보다 먼저 울음으로 오신 분들을 맞이했다.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2022년 2월 6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 천막 농성을 했었다. 그때 함께했던 분들이 3월 10일에 전주 전북지방환경청 앞으로 천막을 옮기자, 7월에 와 주신 것이었다.

전날인 7월 7일, 서울지방환경청이 제출한 1차 보완서가 전북지방환경청으로 넘어왔다. 이에 1249일째 천막 농성의 이유가 절박해지고 있었다. 우리의 요구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공항 말고 수라갯벌을 살게 하는 것이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마지막 변론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천막 농성 1251일

이날은 전주 천막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으로 향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2022년 9월 28일 국민소송인단 1,308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제기했고, 2025년 2월 27일 7차 재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5월 15일 선고 예정이었다. 그런데 원고인단이 최근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서를 입수 확인 결과, 새만금 신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법 상 공항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항공안전과 관련된 장애물 평가에서 이동 장애물인 조류를 포함하지 않은 위법사항을 새롭게 주장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그리하여 7월 10일 변론 기일에 버스를 대절해서 전주와 군산에서 온 50여 명의 사람과 그 외 전국에서 모인 이들이 서울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B220호 중법정 앞에 모였다.

오전 11시 10분, 최후 변론이 시작되자 참고자료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화면에 펼쳐졌다. 주요 변론 쟁점은 두 가지였다. 아홉 가지 장애물 중 무형의 조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과 신규공항 조류충돌 반경을 5km에서 13km까지 보아야 한다는 점. 반경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범위에 따라 조류의 종류가 159종에서 50종이 제외된 109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조류의 무게와 출현 빈도에 따라 조류충돌의 위험도가 달라지기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피고 측은 5월 13일에 신규 기준 공항 모두 검토해 전략환경평가에 수록했고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변론 후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사의 설명으로 오측(誤測)이었음이 밝혀졌다.

판결 선고 기일은 2025년 9월 11일 13시 55분으로 정해졌다.

10분 만에 끝난 변론 후 법원 건물 밖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김나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홍보국장의 사회로 담당 변호사에 이어 김지은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이 발언했다. 그녀는 먼저 안전한 항공운항의 책임자이자 사고 시 1차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항공조종사들의 이야기를 했다. 사무국장의 발언을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의견서를 토대로 정리해 본다.

변론 재개를 앞둔 2025년 7월 3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이하 조종사협회)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의견서를 작성했다. 조종사협회는 조류충돌(Bird Strike)이 항공기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는 요소이며 심각한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항공안전 저해 요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새만금 지역은 대규모 조류 서식지이자 철새 도래지로, 해당 지역에 공항을 건설할 경우 치명적인 조류충돌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특히 인근의 수라갯벌은 다양한 종류의 조류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항공기 운항에 있어 중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는 가창오리 떼와의 조류충돌이 1차 사고 원인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179명의 탑승객이 사망하는 참사로 이어졌는데, 이는 조류 서식지 인근 공항의 항공안전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항 당국은 다양한 조류 퇴치 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라 보기 어려우며 가장 확실한 방안은 조류 서식지 인근에 공항을 건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신공항을 비롯한 신규공항 건설예정부지는 반드시 조류 서식지를 피해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인단은 7월 10일 변론 재개 후 조종사협회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류충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새만금신공항이 뚫려버리면(허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 (...흑산도공항...)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류충돌 대참사를 반복하는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재판부는 너무너무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1일, 재판부가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하기를 믿겠습니다. 그날 (여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기자회견장 옆에서는 지혜복 선생님이 1인 시위하고 있었다. 법원 직원들은 기자회견 중에 경찰에 신고했다며 해산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모인 이들은 단체로 버스에 올라 용산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새까맣게 그을린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김현욱 집행위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2022년 1월 8일, 하동부터 부산까지 남도순례길에 들렀던 가덕도. 가덕진성과 놀차마을과 대항전망대와 외양포 구석구석 가보았던 그곳. 아직도 눈에 선한 지형보전 1등급, 생태자연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인 가덕도.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그곳이 공항을 지으면 태풍과 조류총돌로 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지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얼마나 광대하고 수려한 생명을 품은 섬인지를 알게 된다. 그 아름다운 섬을 파괴해서 공항을 짓겠다고 말이 되는가.

"가덕도는 공항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 옆에는 성역없는세월호진상규명시민행동이 있었다. 2021년 엄동설한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하던, 그리고 지난 한국유평테크 희망 뚜벅이 때 긴 생머리 휘날리며 아들 휴대전화기를 들고 걸은 임경빈 엄마 전인숙 씨가 있었다.

참사 11주기가 지났어도 규명되지 않은 진상.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이상 안전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철새 도래지에 공항을 지어서 또 다른 참사가 유발될 게 뻔한데도 강행하겠다는 정치권. 그러니 세월호 참사와 신공항 반대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슈였다.

연대는 나눔 7월 14일 월요일 천막 농성 1255일

오후 두 시, 전주역 앞에서 두 사람을 기다렸다. 느리와故 김용균 엄마 김미숙 씨.

지난 6월 19일 영천의 한 대학학교에 특강 차 갔다가 느리가 알 슈기 노동을 하는 근처 포도밭에 방문했을 때 우연히 용균 엄마와 쿠팡 해고 노동자도 지지방문을 했었다.

지난 7년간 다수의 민중 집회 때 맨 앞자리에서와 최근 한국유평테크 하이테크 고용 승계를 위한 희망 뚜벅이 때도 용균 엄마를 본 적은 많았지만, 개인과 집단 중간 지점에서 대면한 건 처음이었다.

맨살이면 화상 입을 정도로 고온인 비닐하우스 포도농장 안에서 20여 일간 사인머스크 알알이 숨을 불어 넣어준 느리가 그 고강도 노동의 품삯 절반을 문정현 신부님의 서각 주문으로 쾌척 후원하고, 그 작품을 가지러 오는 길에 용균 엄마와 동행한 것이었다.

미사 시간 한 시간 전에 전주에서 돌을 태워 오니 자연스럽게 오후 세 시 미사가 연결되었다. 열두 신부님과 수십 명의 신자와 비신자가 새만금 신공항을 반대하고 수라 갯벌을 살리려는 한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했다. 그중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과 니키와 말벌 동지 해인도 있었다.

다 함께 저녁 선전전을 하는 길 건너 분홍색 자귀나무꽃이 피어있었다. 사랑을 말하는 나무 아래 걸린 글귀는 섬뜩한 진실이었다.

'수라갯벌에 공항건설은 또 다른 조류총돌 참사를 예고하는 것이다'

선전전 후 전주 사람 가지가지가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을 꽃마차에서 접대해주었다. 그리고 책 읽는 공유 숙박 '뽕과 장미' 공알 네가 방과 더불어 해남 수제 맥주와 참외를 내어주셨다. 운전기사를 자처한 나도 덕분에 전주 인심을 맛보았다.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천막 농성이 이어준 인연, 연대는 나눔이다.

빗속의 천막

7월 16일 수요일 천막 농성 1257일

대전 탈핵신문읽기 후 니키를 모시고 전주로 향했다. 눈앞에 뿌예지도록 쏟아지는 비를 뚫고 한 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전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는 가지가지, 상주, 마후라와 60+ 기후행동 회원분들이 피켓을 들고 서 계셨다. 비속에 한 주간 천막을 지키시는 니키를 남겨두고 떠나왔다.

나눔이 있는 미사

7월 21일 월요일 천막 농성 1262일

열 분의 신부님과 쉰 분이 좀 넘는 신자와 비신자가 모여 미사를 봉헌했다.

더웠다 구름 끼었다 종잡을 수 없는 여름날, 수박과 바나나와 망고바가 펼쳐졌다. 나는 친구의 수고로운 정성인 냉동 죽순을 받아다 평화바람과 연대자들에게 나누어드렸다. 나눔이 있는 미사,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행진 준비

7월 23일 수요일 천막 농성 1264일

아침에 갑작스레 온 문자를 받고 가슴이 뛰었다. 걷기의 달인을 찾는 내용이었다.

전주로 향했다. 새, 사람 도보 행진의 준비작업 시작이었다.

이후 수요문화제와 부동의 중창단의 깜짝 공연이 있었다.

생일 축하

7월 28일 월요일 천막 농성 1269일

월요 미사 시간에 못 맞추고, 저녁 선전전 시간에 맞춰 전주 전북지방환경청으로 향했다. 매일 연대하는 가지가지와 고창에서 오신 부부와 더덕과 함께 저녁 선전전을 했다. 환경청 건물 구석에서는 샘이 새 모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날은 샘의 생일이었다. 선전전 후 다 함께 모여 맛있는 저녁식사를 했다. 한때 민주노총의 '오정'이었다던 샘은 동지들이 생일을 행겨준 건 처음이라고 했다. 모처럼 즐거운 저녁이었다.

새만금신공항 부동의 촉구 집회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천막 농성 1271일

중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 환경청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있었다.

지난 7월 7일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서가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이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받아 조만간 2차 보완을 요구하든지 협의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해 부동의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였다.

생태학살과 기후재앙으로 희생된 생명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한 새만금신공항 부동의 촉구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김지은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이자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최근 전북지방환경청 박건우 환경평가과장이 '신공항 지으면 조류총독을 100퍼센트 확산할 수 있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불과 반년 전인 작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참사한 사고를 보고도 무안공항보다 조류총독 확률이 650배 더 높은 수라갯벌에서 조류총독사고를 장담할 수 있느냐고 하니, 그들은 확률과 통계라는 수학과 과학을 믿지 않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그동안 천막 농성장에서 가장 많이 밤샘하신 김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대표가 전북지방환경청장에게 당장 부동을 통보하라고, 헌법 7조에 근거해 공무원의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고함을 치셨다. 항상 미소 띤 얼굴로 공손하게 두 손 모아 먼저 인사하시는 그분이 언성을 높이는 걸 처음 보았다. 돌아가는 상황이 무척 심각해졌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항공대참사 불리를 새만금 신공항 취소하라

가지가지 공연 이후 문정현 신부님의 촉구 발언이 있었다.

"지난 3월 31일 새벽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천막을 지키고 있는데, 참말로 더워. 오후 두세 시면 견딜 수 없이 더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기운이 다시 나네. 그런데 이거 가지곤 안 된다.

기가 막힙니다. 새만금 이거 미친 짓이야. 이걸 여고 야고 보수 진보 없어. 대통령 일곱 명이 지나갔는데 다 똑같아. 새만금 때려 부수는 대통령들이었다 이거야. 용납할 수 없어.

새만금에 뭘 하겠어? 농사짓겠다고? 야 이 미친놈들아, 소금밭에다 농사짓는 놈 있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소금밭에다 뭘 심어? 국제카지노를 만들겠다고? 너희 새끼들 노름 가르칠래?

저는요, 군산 미군기지 앞에서 97년부터 살았어. 하제라는 마을이 있어서 644세대가 살았어. 여섯 개 마을이었어. 아니 미국놈들이 마을 옆에다가 탄약고를 짓고 짓고 하더니. 아니 마을이 있으면 탄약고를 짓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더니 탄약고 안전거리라 하제마을 없애야 한다고 다 쫓아냈는데 관에서는 뭐라고 했던 줄 알아요? 먹고 살길을 찾아서 갔다고. 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쫓아내 놓고서 먹고살길 찾아갔다고? 도둑놈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600년 팽나무가 살아계셔. 우리나라 자연유산 국보야. 야 미국놈들한테 환장한 놈들아, 국보 내줄래? 내줄 거냐고? 그래서 세 번째 토요일 오후 세 시에 55회 팽팽문화제를 가졌어요. 국방부가 그 땅을 차지했지만, 이 팽나무는 지켜야겠다.

상제 중제 하제 다 없어질 판이야. 마을 서쪽 수라갯벌은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거기다가 미군 활주로 하나 더 만든다고? 기존 활주로랑 연결한다고? 관제탑을 옮긴다고? 그거 미군기지 확장이지. 살아있는 수라갯벌에 활주로를 놓고 연결해서 미군기지 확장한다고? 있을 수 있는 얘기냐? 피를 토한다.

어쩐지 새만금 다른 데는 국제카지노를 한다, 태양광 한다며 수라갯벌에만 남겨놓고 아무 계획을 안 세우더라고. 아하 이거 미군 놈들이 가져간다. 그런데 아니냐 다를까 거기다가 새만금 국제공항? 야 이, 거짓말쟁이 새끼들아.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활주로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국제공항이나? 속여도 이만저만이지. 미군기지 확장이야.

우리 과거의 독립투사들이 한탄하겠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지금은 미국을 위해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막아야지 않겠어?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해야지 않겠어? 막아야죠. 절대로 막아야죠. 하제마을 수라갯벌 지켜야 해요. 이거 한번 막아봅시다. 수라갯벌을 지킵시다. 팽나무도 지킵시다.

나는, 나는 할 때까지 할 거야. 할 때까지 할 거야. 쓰러지는 날까지 할 거야. 여러분, 나 믿말 아니야. 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제발 함께합시다. 해서 꼭 지키자 이거여. 지키자 이거여. 고맙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김누리, 김희진, 천기현 세 젊은이의 맑은 공연이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삭발식이 거행되었다.

김연태, 김지은, 오동필……

머리카락이 잘려 나가기 시작했다. 눈을 질끈 감은 그들의 얼굴에서 새들이 날갯짓했다. 푸드덕거리던 것들이 땅에 떨어졌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날 것이다. 그러나 한 번 파헤쳐 콘크리트와 시멘트를 부어버린 갯벌은 그 생명을 살릴 수 없다. 뉴질랜드에서 수천 킬로미터 날아와 알래스카로 날아갈 새들은 비행 중 단 한 번 대한민국 서해 갯벌 새만금에 먹이를 찾아왔다가 비행기에 치여 죽거나 굶어 죽고 말 것이다.

그 자신들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새들을 위해, 그들은 아무 이해 상관없이 신체발부(身體髮膚)를 바치고 있었다. 땅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은 검고 흰 뭉치로 뒤섞였다. 그들의 나이와 연륜이 한데 뭉쳐 있었다. 이런 데도, 이렇게 하는 데도 기어이, 군산에 이미 적자 공항이 있는데도 수라갯벌에 전투기를 위한 활주로를 놓고 중국도 못하는 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하는가.



비장하게 식발 투쟁한 열 명의 사람들이 웃으며 섰다. 머리카락이 잘리던 순간 눈물이 떨어지던 김지은 국장이 다시 환하게 웃었다. 전북지방환경청 앞에 천막 친 이래 연대자들에게 평화를 신신당부하던 그이었다. 그런 그이가 고발장을 꺼내 들었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과 박건우 환경평가과장을 상대로 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부실/누락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형사 건과 손해배상청구 민사 건이었다. 이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겠다는 행동이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거라고 누가 그랬나? 기가 차던 몰상식함으로 임기도 못 마친 정권 덕에 권력을 잡은 정권은 전라도 출신을 국토부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새만금이라는 신기루를 만들어 세계적인 생명 터전을 죽음의 개발로 썩게 만들어 30년 넘게 전라북도에서 권력과 돈을 움켜쥐던 정당이 여당이 된 것일 뿐이다. 금배지 단 그들의 밥그릇에 쌀 대신 지폐와 동전을 가득 담아 씹어 삼켜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들은 음식 대신 돈 먹고살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

도요새와 저어새는 비행장에서 살 수 없다고 그 바다 생명에 기대 사는 인간도 결국은 타오르는 지구의 화염 속에서 지옥을 살다가 말라 죽어갈 거라고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흰발농게와 통통마디의 시체 위에서 꿈자리가 성할 줄 아느냐는 심리적 예견과 더불어 앞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정권에 표를 주는 일은 없을 거라는 실질적 예고를 하는 바이다.

이런 말들이 귓등으로 들릴 행정관료들이 가장 두려워할 정책은 종신 책임제일 것이다. 임기 내 이득을 챙기고 임기가 끝나면 과실정책에 대해 유아무야 놓치고 지나가지 못할 종신 책임제. 10년이든 30년이든 퇴직 후에도 거슬러 올라가 잘못된 정책을 결정한 책임자들에게 죽을 때까지 경제적 사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종신 책임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권력과 자본이 결탁해 함부로 생명을 파괴하는 짓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식발식 후 하늘에는 무지갯빛 구름이 떠 있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처럼 우리 마음이 하늘에 닿은 듯했다. 그날의 결의문 전문을 올린다.

< 결의문 >

생명을 죽이는 일에 보완은 없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신공항 부동의하라!

수라갯벌 운명의 날이 임박해오고 있다. 지난 7월 7일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서가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되었고, 전북지방환경청은 전문기관 검토의견들을 받아 조만간 2차 보완을 요구하든지 협의 의견을 낼 것이다.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1차 보완서에 대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내놓은 답은 부동의가 명백하다. 전북지방환경청의 보완 요구 사항이었던 사업 시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 파괴, 국제적으로 중요한 조류 서식지 손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훼손, 조류충돌 위험성, 새만금호 준설 등에 대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은 모두 부실 그 자체이다. 아무것도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고, 보완될 수도 없는 사항들이다.

수라갯벌은 64종의 법정 보호종을 비롯하여 새만금 권역에서 가장 많은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는 핵심 생태지역이며, 대체 불가능한 서식지이다. 조류 서식지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존에 있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지니는 지역이다. 람사르 습지 등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으로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해당하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기착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과 생태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권역으로 유산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지역이다. 즉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존하고 유산 등재 기준을 유지하는 데 있어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이러한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비가역적 손실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세계유산의 OUV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만금신공항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 사업 시행으로 인해 유산 등재 취소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및 1차 보완서

모두 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훼손에 대한 영향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식지 손실과 생물 다양성 악화를 가져오는 사업에 대해 새들은 무조건 회피하고,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만 반복했을 뿐이다. 회피한 종들이 어디서 어떻게 서식 가능한지, 환경 영향은 어떻게 최소화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서식지를 빼앗긴 생물종들의 대체 서식지로의 이주 가능성과 생태적 수용 가능성, 온전한 서식 여부에 대한 어떤 구체적 검토와 평가도 수행되지 않았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근거 없고, 무책임한 예측의 나열일 뿐이다. 따라서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러한 엉터리 평가서에 대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부동의 해야 마땅하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불러올 멸종위기종들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종들의 서식지 손실과 생태학살에 대한 저감 대책과 보완은 없다. 대체 서식지 따위 없다. 항공기-조류충돌 대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무려 650배나 높고, 19년 한 번 치명적인 전파 사고가 날 것으로 예측된 조류충돌을 막을 대책은 없다.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훼손에 대한 대안은 없다.

오히려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는 그 자체로 수라갯벌에 사는 수많은 생명에 대한 증거이며, 이곳이 전 지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생태지역인지를 보여주며 왜 수라갯벌에 공항을 지으면 안 되는지를 방증하는 증거이다. 즉 전북지방환경청이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해 부동의해야 함을 입증하는 자료인 셈이다.

생명을 죽이는 일에 보완은 없다. 있다면 그것은 기만과 거짓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엉터리 저감 대책, 보완 운운하며 부동이가 명백한 사업에 대해 결코 면죄부를 내어주어선 안 될 것이다. 전라북도도와 한국 정부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소중한 갯벌과 습지를 없애버리는 범죄의 조력자가 되어선 안 된다.

전북지방환경청 담당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중립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디 그 다짐을 명심하길 바란다. 무책임한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행정과 정치인들, 토호세력들의 압력에 휘둘러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엄밀히 검토하길 바란다. 전북환경청이 중립적, 객관적으로만 검토한다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낼 협의 의견은 '부동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전북지방환경청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전문기관 검토의견과 국가유산청 등 세계자연유산의 위협을 강조하였을 의견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와 평가에 따른 재보완 요구 없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동의를 해준다면 우리는 그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최근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을 인용하여 현 용인시장이 용인경전철 사업을 진행한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였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회 동의 없이 춘천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는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북지방환경청의 졸속 동의가 강행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지구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수라갯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새만금신공항을 지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8천 년 수라갯벌을 전쟁공항, 학살공항, 유령공항, 탄소공항과 바꿀 수 없다. 기후가 붕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붕괴되는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보다 더욱 가혹해질 극한의 기후재앙 세상에서 한가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이나 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무엇으로 만들 수 없는 갯벌과 바다를 없애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자본의 이윤추적과 미국의 패권을 위해 전쟁활주로로 갖다 바치겠다는 새만금신공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학살과 거짓의 동조자가 아니라, 생명과 진실의 자리이다.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이 엉터리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망설임 없이 당당히 부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생명을 죽이는 일에 보완은 없다. 새만금신공항 부동의하라!

전북지방환경청은 죽음의 공항이 아니라 생명의 갯벌에 동의하라!

생태학살·조류충돌·기후재앙·혈세착취·전쟁위협 새만금신공항 부동의하라!

새만금신공항 필요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2025년 7월 30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답사 7월 31일과 8월 2일

군산 금강휴게소부터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240km를 더덕과 오이와 함께 이틀에 걸쳐 2~3km 단위로 답사했다.

새만금신공항 부동의를 위한 전국집중 행동의 날 2025년 8월 7일 목요일 16시

식발식을 한 지 8일 만에 다시 전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가까이는 충남 세종보, 지리산, 낙동강, 멀리는 부산 가덕도와 제주도에서. 탈핵 진영의 광주와 고창에서도.

오동필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의 취지 발언과 김연태 공동대표의 부동의 촉구 발언이 있었다.

"(상략)

세월호 학살 이후에 우리는 알았습니다. 더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위험이 닥치면 밖으로 튀어나와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희망이 아니라 전북에 절망을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고 부동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중략)

자신의 영달이나 진급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건부 동의를 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국회의원들, 국토부 장관을 출세시키고 승진시키는 것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상급자의 잘못된 명령에 복종하지 마시고 거부하십시오. 헌법 제 7조에 나와 있는 대로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들 손자들에게 떳떳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끝까지 지적하고 파헤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임기환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공동대표와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가 연대 발언을 했다. 이어 일 년 넘게 세종보 농성 천막을 지키고 있는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이자 밴드 프리버드 임도훈의 공연이 있었다. 그 뒤에는 햇빛을 막아주기 위해 우산을 받쳐 든 가지가지가 있었다.

참가자들이 부동의 촉구 서한과 논평 모음을 접수하기 위해서 전북지방환경청 건물 안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모두 땅바닥에 드러누워 다이 인(die-in) 평화시위를 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만금에서 지금까지 죽어갔고 또 신공항이 건설되면 앞으로도 죽어갈 큰뒷부리도요, 저어새, 가창오리, 검은머리물떼새, 백합, 황새, 통통마디, 칠면초, 흰발농게, 샬 등이 되었다.

다시 밖으로 나와 김희인 신부의 시 낭송에 맞춰 김나희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홍보국장과 최은숙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2차 식발식을 거행했다. 지난번처럼 박상주 동지가 흰 가운을 입고 식발을 시작했다. 방금 죽은 척했던 우리는 머리카락이 생명을 잃는 모습을 보며 새만금의 참상을 막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딸기의 새,사람행진 설명 후 지역마다 구호를 외쳤다.

"가덕도는 생명입니다."

"제주제2공항 설러볼라."

"금강아 흘러라, 낙동강아 흘러라, 영산강아 흘러라, 섬진강도 흘러라, 한강도 흘러라, 강물아 흘러라"

"전주에서 수원까지 부동의 흘러라."

"생명을 죽이는 일에 보완은 없다. 새만금신공항 부동의하라."

"지리산 어디에도 케이블카 필요없다. 지리산 케이블카 중단하라."

"김성환 환경부장관 사퇴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하지 마라."

"전북지방환경청은 죽음의 공항이 아니라 생명의 갯벌에 동의하라."

미군의 전쟁기지 새만금신공항 필요 없다. 수라갯벌 보전하라."

결기 있는 사람들의 투철한 희생, 확실한 비움. 그렇게 모두 열두 명이 식발했다. 깃털 뺀 새처럼 된 사람들이 이제 큰뒷부리도요새와 함께 걸을 것이다.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전주 전북지방환경청에서부터 9월 6일 토요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그리고 9월 8일 월요일 서울행정법원까지 250km를 걸어갈 것이다.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선고일에 맞춰서.

법이 큰뒷부리도요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군 제2활주로
새만금신공항
필요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생태학살
기후재앙
혈세착취
전쟁위협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절망!
갯벌이 희망!
수라갯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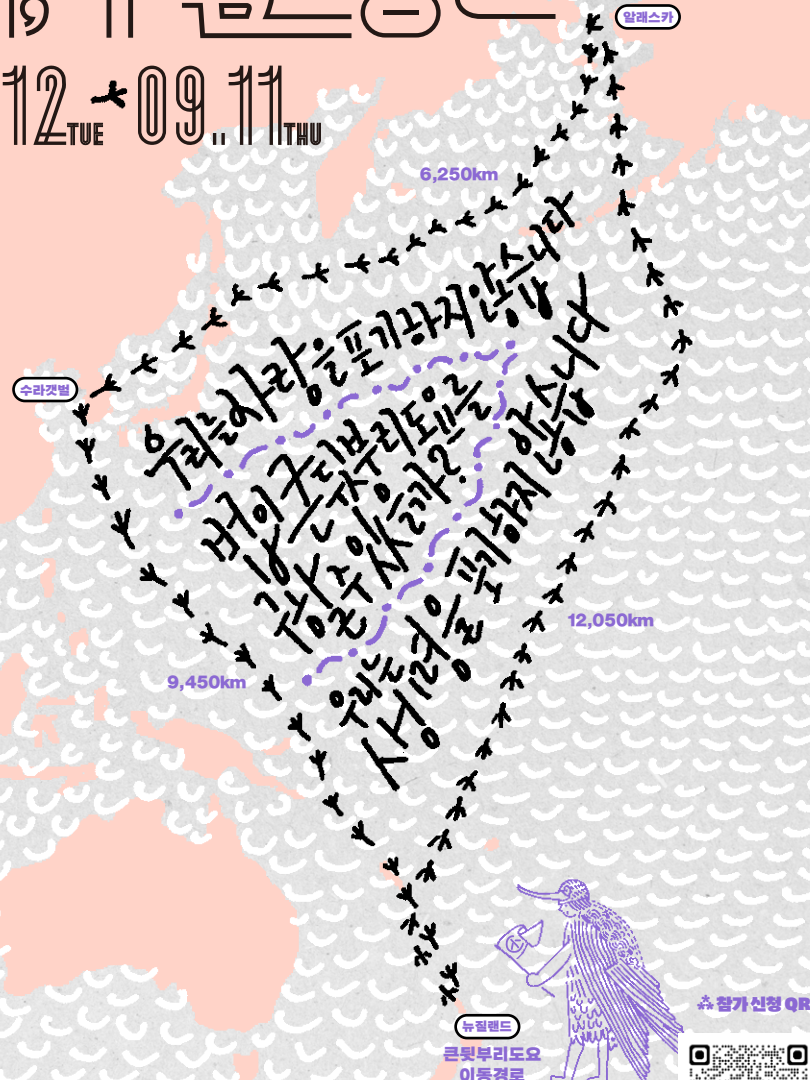
새명을 죽이는 일에 보완은 없다.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신고하 부동의하라!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는

새, 사람행진

08.12 TUE ~ 09.11 THU

군산
서천
부여
공주
세종
천안
평택
화성
수원
안양
서울



주최 | 새, 사람행진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문의 : 오이 010-2612-2322 덕이 010-6795-1202

후원계좌 : 농협 351-0390-7008-93 문정현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는 '새, 사람행진'

법이 큰뒷부리도요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라갯벌을 파괴하고, 군산미군기지 확장이 될 새만금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북지방환경청의 협의 통보가 가까워졌습니다. 9월 11일에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새와 사람 모두에게 위험한 공항, 군산미군기지의 제2활주로 건설 사업인 새만금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북지방환경청은 마땅히 부동의해야하고, 법원은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해야합니다.

수라갯벌을 지키기 위해 수라갯벌에서 서울행정법원까지 큰뒷부리도요새와 행진을 시작합니다.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행진에 함께해주세요.

- | 일시 : 8월 12일(화)부터 9월11일(목)까지
- | 행진 경로 : 전북지방환경청-수라갯벌-서천갯벌-부여-공주-국토교통부
-천안-평택-화성-수원-안양-용산-서울행정법원

- [주요 일정에 함께해주세요]
- 8/12(화) 오전 9시30분 전북지방환경청 새,사람행진 출발 기자회견
 - 8/13(수) 오전 9시 수라갯벌 행진단 선언
 - 8/25(월) 국토교통부 앞 새만금신공항 강행 규탄 집회
 - 8/31(일) 큰뒷부리도요를 지키는 세계 연대 행진의 날
 - 9/6(토) 용산전쟁기념관 앞 생명지킴이대회
 - 9/8(월)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새만금신공항 취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과 행진 마무리
 - 9/8-10 서울행정법원 앞 문정현 신부의 서각기도
 - 9/11(목) 오후 1시 55분 새만금신공항 취소 소송 선고 재판

- | 후원계좌 : 농협 351-0390-7008-93 문정현
- | 문의 010-2612-2322(오이), 010-6795-1202(덕이)
- | 주최 : 새,사람행진단/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250812

큰뫼부리도요의 날

©일곱째별



©TONY



©TONY



익산시
Iksan

만경강 삼례교

8.12 화 **큰뺨부리도요의 날**
전북지방환경청-만경강 삼례교(8km)
전북지방환경청 -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점심) - 만경강 삼례교

+ 새, 사람행진 출발 기자회견 +

전북지방환경청

전주시
Jeonju



8천년 수관개발
비공군 전장침투전에
배양기수 없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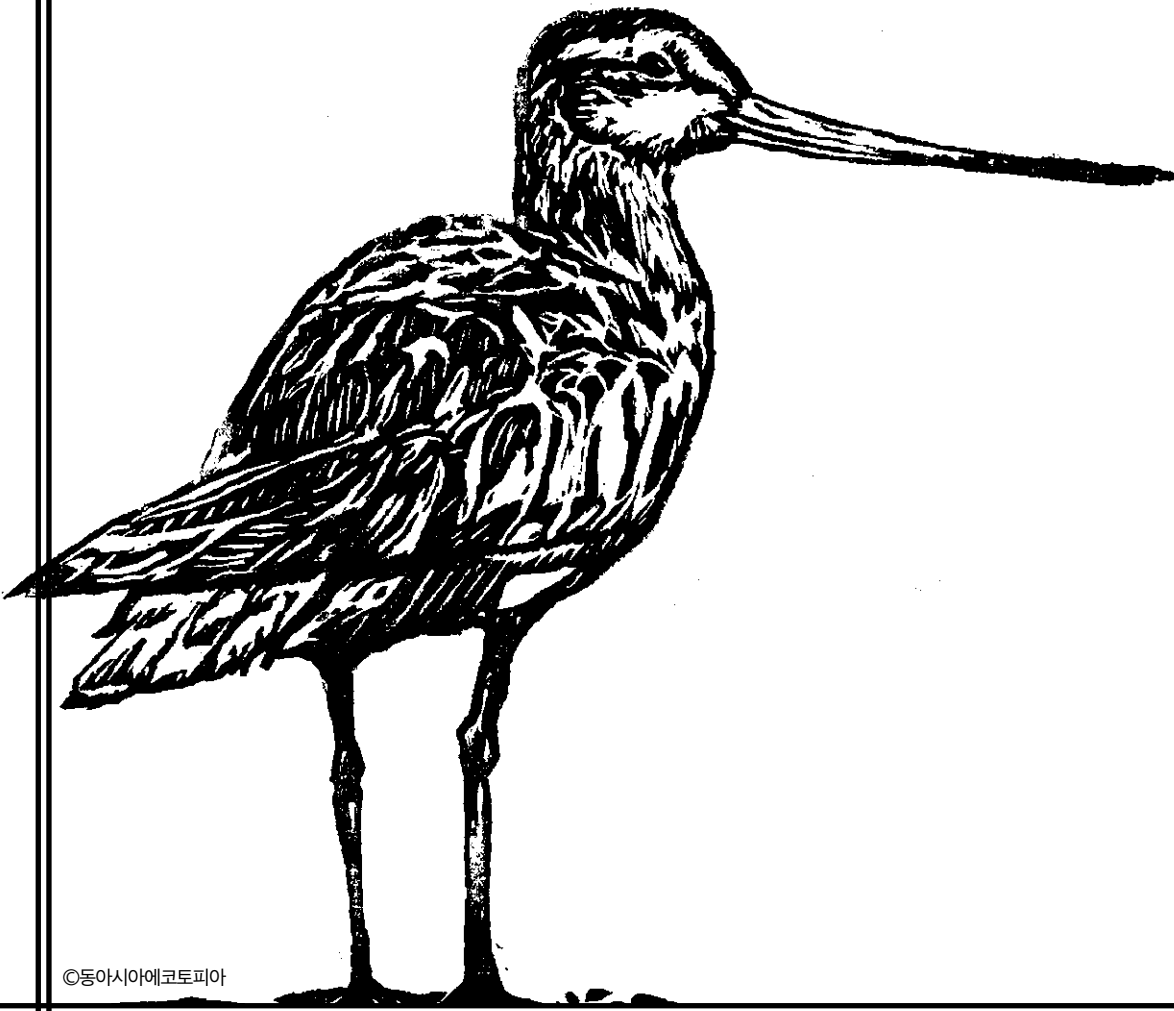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이 쪽 옆의 비공군
기후침투전에
기후침투가속화
새만금신공항

미국과 중국
교섭단체들의
중립적개입
새만금신공항
취소하라

평화 위협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핏줄 없다

큰뒷부리도요의 날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취소소송 판결을 앞두고 우리는 수라갯벌 보존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위해 새,사람행진을 떠납니다. 수라는 생명의 터전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수라갯벌에 신공항을 짓겠다고 합니다. 새만금신공항은 군산공항이 있는 군산미군기지에서 불과 1.3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조류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보다 610배 높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미군기지 확장이자 조류충돌사고라는 비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법원이 생명과 안전의 편에서 수라의 뜻 생명과 그곳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까지 향하는 발걸음 앞에 수라의 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하려 합니다. 행진 첫날인 오늘은 새,사람행진의 상징인 큰뒷부리도요의 날입니다.

큰뒷부리도요(bar-tailed godwit)는 한 번에 13,000km를 쉬지 않고 여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식지인 호주-뉴질랜드에서 출발해 번식지인 알래스카-시베리아까지 남반구와 북반구를 횡단합니다. 우리는 큰뒷부리도요가 왜 이렇게 먼 길을 여행하는지, 날아가는 경로는 어떻게 찾는지, 쉬지 않고 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알래스카-시베리아에서 태어난 아기새들은 부모새들이 출발한 후 2주 뒤에 출발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뉴질랜드를 정확히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랜시간 몸에 새겨진 길을 떠나는 큰뒷부리도요의 여정을 상상하면 경외롭기만 합니다.

큰뒷부리도요는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향하는 여행 중 딱 한 번 쉬는데, 그곳이 바로 한국 서해안 갯벌이고 수라갯벌도 그중 한 곳입니다. 큰뒷부리도요가 뉴질랜드를 출발해 수라갯벌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 그동안 큰뒷부리도요는 먹지도 쉬지도 않고 날아 옵니다. 한국에 도착할 때 큰뒷부리도요는 몸무게가 40% 감소할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번식지인 북반구로 가기 전 새만금과 수라갯벌에서 충분히 먹이활동을 한 후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기착지인 서해안 갯벌이 새만금개발로 점차 줄어들자 큰뒷부리도요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큰뒷부리도요가 서식하는 뉴질랜드(아오테아로아)의 마오리 사람들은 큰뒷부리도요를 자신들의 조상, 기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오리 사람들은 새만금방조제 건설 후 큰뒷부리도요들이 대규모로 아사했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뒷부리도요 보호를 위해 새만금신공항사업 백지화 투쟁에 우리와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만금 건설과정에서 수없이 사라져간 큰뒷부리도요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어가는 새만금 수라갯벌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끈질김과 강인함을 생각합니다. 큰뒷부리도요는 지구의 남과 북을 연결해 주고 새만금 수라갯벌과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이로운 여정이 끝나지 않도록 새만금 신공항을 백지화 하고 수라갯벌을 지켜낼 것입니다.



멸종위기 사랑을 구하기 위해

저는 이 귀한 행진에 너무 끌려서, 안 오고는 배길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요. 엄청나게 빨라지고 다 우수수 흩어지는 세상에서 함께 느리게 걷는다는 행진의 방식이 귀합니다. 이 인간중심의 사회에서 새를 앞세우는 행진의 틀이, 새가 귀합니다. 여전히 개발이 기본방향인 사회에서 공항 말고 깃벌을 외치는 행진 목적이 너무나 귀합니다.

한 편에서는 신공항을 짓자고 하고, 또 이 편에서는 수라깃벌을 보전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더 이상 개발론 대 환경론의 대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쪽은 발전하고 한 쪽은 발전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어떤 발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다른 답입니다. 무엇이 잘사는 것이냐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새만금신공항을 짓는 것이 발전입니까? 무엇이 발전합니까? 경제성은 1의 절반도 안된다는 사업타당성 평가가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 평가를 무시하고 공항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건 잼버리 참여자들을 실어나른다는 명분이었는데, 그 명분도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공항만 지어놓으면 지역이 발전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짓습니까? 그 믿음의 끝은, 적자에 시달리는 다른 지역 공항들을 보면, 공항을 지은 후 실질성장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다른 지역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전에,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새만금 사업을 하면 전북이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이자 환상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 사업의 전신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 것은 1970년대였고, 새만금 사업이 착공된 것은 1991년입니다. 그 20여 년 사이 한국 사회는 쌀 생산을 늘려 잘먹는 것이 지고지상의 목표였던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사회, 그러니까 농지 확보를 위해 깃벌을 간척까지 해야할만한 경제성은 없는 사회로 변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새만금 사업은 농지확보라는 과거의 필요를 명분삼아서, 발전할 것이라는 환상에

기대어 진행되었습니다. 2006년 새만금 사업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서, 명확하지 않고 증거도 없는 환경 피해와 비용을 근거로, 공익을 위한 국책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현실은 명확합니다. 새만금 사업 이후 계와 조개, 물고기와 새, 셀 수도 없고 세어지지도 않은 무수한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이만 여명의 어민들이 터전을 잃었고, 전북 지역 어획량은 절반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공익은 명확치 않았습니. 새만금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 중 80% 이상은 전북이 아니라 대형 건설기업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새만금 사업의 전례를 2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나간 환상에 끌려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세대에 보리라고 예상치 못했던 기후변화와 각종 재난을, 그리고 항공사고와 참사를 참담하게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증가할 것만 같았던 인구의 감소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개발과 성장보다는, 생명과 안전과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돌봄을 최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묻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함께 행진을 하며 물을 것입니다. 2006년, 새만금의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지 못했던 법이, 이제는 수라깃벌을 찾는 큰뒷부리도요를 구할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법이 큰뒷부리도요를 구할 수 있는 것. 사랑이 멸종위기라는 시대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멸종위기의 생명들이 늘어가는 때에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발전의 길이고,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큰뒷부리도요가, 저어새가, 가창오리가, 검은머리물떼새가, 백합이, 통통마디가, 흰발농게가, 대모잠자리가,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존재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저 혼자만 잘 살 수 있는게 아니라 인간 아닌 존재들이 잘 살 때에야 비로소 잘 살 수 있다고, 제가 산 시대가 가르쳐주었습니다.

저는 잘 사는 길로 걷고 싶습니다. 수라깃벌이 사는 길, 같이 사는 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연구하고 활동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사회가 변한다는 아주 희미한 희망을 놓지 않고 싶습니다. 이 행진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작고도 아주 큰 희망입니다. 사랑을,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제게는 기적같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새,사람이 온다



©신유아

새들이 모였다.

새,사람들이 모였다.

새,사람행진이 시작됐다.



©신유아

2025년 8월 12일, 전주의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새,사람행진이 시작됐다. 왜 행진을 하는가.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막기 위해서다. 새만금신공항이 건설된다는데, 그 건설지가 군산공항을 1.3km 옆에 둔 자리다. 군산공항은 수요가 없어 재작년 27억 원 적자, 작년에는 5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미 사업타당성 평가에서 새만금신공항의 경제성은 0.479로 나왔다. 투자한 비용에 비해 편익이 절반도 안된다는 말이다. 그러한 경제성 평가를 무시하고 신공항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잼버리 덕분이다. 잼버리 참여자들을 실어나른다는 명분으로,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잼버리가 참담히 조기 폐막된지도 2년 넘게 흘렀으나, 신공항은 그대로 살아남아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왜 군산공항 옆에 또 공항을 짓느냐, 라는 질문에 전북과 국토부는 답한다. 군산공항은 군용공항이라 민항기 운항에 제약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운항 시간대나 횟수에도 제한이 있고 중국을 비롯한 국제선 운항에도 차질이 있으니, 군산공항과 분리된 순수 민간공항을 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계획상, 신공항은 군산공항과 유도도로 연결되어 군산공항과 통합관제될 것이다. 2022년의 기본계획에서 밝혀진 이 내용에 사실상 미군기지의 확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민단체들의 우려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추후 협의를 통해 내용을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었다(전주MBC, 220629). 그리고 2025년 착공을 앞둔 현재까지 그 내용은 그대로다.

이 새만금신공항의 건설지는 사실 30년이 넘게 현재진행형인 새만금사업 지대 중 매우 드물게 원형이 갯벌이 남아있는 곳이자, 군산에서는 유일한 원형 갯벌지대. 새만금 방조제가 막히기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이곳을 찾던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이 아름다운 갯벌에, 인근의 남수라마울 이름에 착안해 수놓을 '수'(繡)에 비단 '라'(羅), 수라 갯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방조제가 막힌 후 바닷물이 막혀 그 수놓던 백합과 동죽, 맛조개와 농게는 죽고 그들을 잡아 살아가던 많은 어민들도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삶은 이어져 여전히 물이 찰랑찰랑한 지대가 남아있고, 물이 마른 자리에 통통마디, 해홍나물, 칠면초 등 염생식물이 들어서고, 염분이 더 빠진 자리에는 갈대 등 육상식물이 들어섰다. 거기에 수달과 고라니와 삼이 살고, 칠게와 갈게, 금개구리, 농게와 사각게, 갯지렁이들이 살고, 그들을 따라 저어새와 줌도요, 민물도요와 큰뒷부리도요,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큰고니, 흑부리오리 등 수많은 새들이 수라 갯벌을 찾는다. 새들에게 수라갯벌은 황폐해진 새만금 지대에서 그나마 먹고 쉴 수 있는 터다. 이곳에 새만금신공항을 짓는다면, 새들은 어디로 가나? 2021년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보다 610배 높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새만금신공항사업이 정말로 현실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현재 검토 중인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한다면, 또 서울행정법원이 국민 소송인단 1,308명이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오는 9월 11일 있을 최종 선고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 필요성이 명확치 않은 신공항이 아니라 수많은 존재들이 필요로 하는 수라갯벌이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새,사람들이 모였다. 새,사람행진단은 8월 12일부터 9월 11일에 걸쳐, 전북지방환경청과 수라갯벌을 돌며 시작을 알리고, 서천에서 서울까지 행진한다.

행진 일정은 주연령대를 5-6대에 맞춰 짜여졌으며, 고로 뺀세지 않다. 평균 시속 3km 수준으로 하루 10-15km 내외로 걸을 예정이다. 행진단예의 참여는 행진의 취지에 공감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니, 참가를 원하시는 이는 링크(<https://forms.gle/iP8dp8NqCvbYgL7z5>)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참가 안내는 링크(<https://docs.google.com/document/d/1W3dYqHZy30cRHdMI9Ln5PwVqo3bck3auzzRqv5ZX590/edit?usp=sharing>)를 참고하면 된다. 영 걷기에는 자신이 없다면 중간중간의 집회 및 행사(8월 2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집회, 9월 6일 서울 광화문 생명지킴이대회, 9월 8-10일 서울행정법원 앞 문정현 신부 서각기도,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선고 재판)에 참가할 수도 있다.



🌟 참가신청



🌟 참가자안내



🌟 텔레그램채널

이번 행진의 주인공은 큰뒷부리도요다. 큰뒷부리도요들은 조류계의 마라토너라고 불린다. 뉴질랜드와 호주 등지에서 겨울을 나고는 한국의 서남해안에서 봄을 보내고,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등지로 가 번식한다. 이들은 한국행을 몇 주 앞두고부터 집중적으로 먹어 체중을 불린다. 그리고는 기상 조건이 맞다, 싶을 때 뉴질랜드와 호주로부터 약 1만km를 약 8일을 쉬지 않고 밤낮없이 날아 한국의 서남해안에 도착한다. 8일 내내의 비행 동안 이들은 뼈와 가죽만 남아 체중이 절반 가량 줄어든다. 날갯죽지를 축 늘어뜨린 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지친다. 서남해안에서 한두 달을 쉬며 몸을 회복하여 다시 약 6천km를 날아 시베리아/알래스카 등지로 이동해, 북극의 여름 동안 번식하고 새끼를 키워낸다. 그리고 다시 남으로 이동한다. 이때는 순풍을 타고 약 9일간 1만 3천km를 날아 태평양을 가로지른다.

큰뒷부리도요의 먹이는 주로 게와 갯지렁이고, 그래서 주로 갯벌과 강 하구의 얕은 물가에 머문다. 한국 서해안은, 특히 새만금 갯벌 - 만경강과 동진강을 따라 내려온 풍부한 유기물들 덕분에 무수히 풍요로운 생명들이 움트고 컸던 - 은 이들이 쉬며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기착지였다. 그러나 지난 몇 십년간 새만금 공사를 포함한 무수한 공사들로 갯벌들이 줄면서, 이들의 개체 수도 급감했다. 생존을 건 비행 끝에 쉴 곳을 찾지 못해 탈진하여 죽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봄에 흔하게 보였던 이들이 2022년에는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 우려'되는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되었다.

예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이나마, 큰뒷부리도요는 여전히 서해를 찾는다. 새만금 지역에서 그나마 몸을 의탁할 수 있는 휴식처를 찾아 수라갯벌로 온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정을, 무참한 현실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그들의 끈질김과 강인함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는 큰, 큰뒷부리도요와 함께 길을 떠난다. 큰뒷부리도요와 그의 수많은 공존자들의 수라갯벌과 함께 살기 위한 길을.

생각해봤다. 살아있는 큰뒷부리도요는 이 새, 사람행진을 어떻게 볼까? 안중에도 없을 것 같기는 하다. 인간사가 그에게 무슨 관심이라, 새만금신공항 개발계획이 무슨 의미라, 그들은 변해가는 현실을 순간순간 직면해갈 뿐이다. 조류충돌을 막기 위해 공항 인근에 조류가 먹고 쉴만한 초지와 습지를 싹 제거할 것이라는 새만금신공항이 지어지면, 그 현실을 그들은 그때서야 맞닥뜨릴 것이다. 그나마 남은 중에 또 많이는 죽어갈 것이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그러니 인간사에 그나마 얽힌 내가, 공항 계획을 알고 뭐라도 해볼 수 있는 내가 그들이 사는 방향으로 걸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묘하게도, 이 인류세의 시대에 인간이 사는 방향과 일치할 것이다.



©신유아







©이재각

250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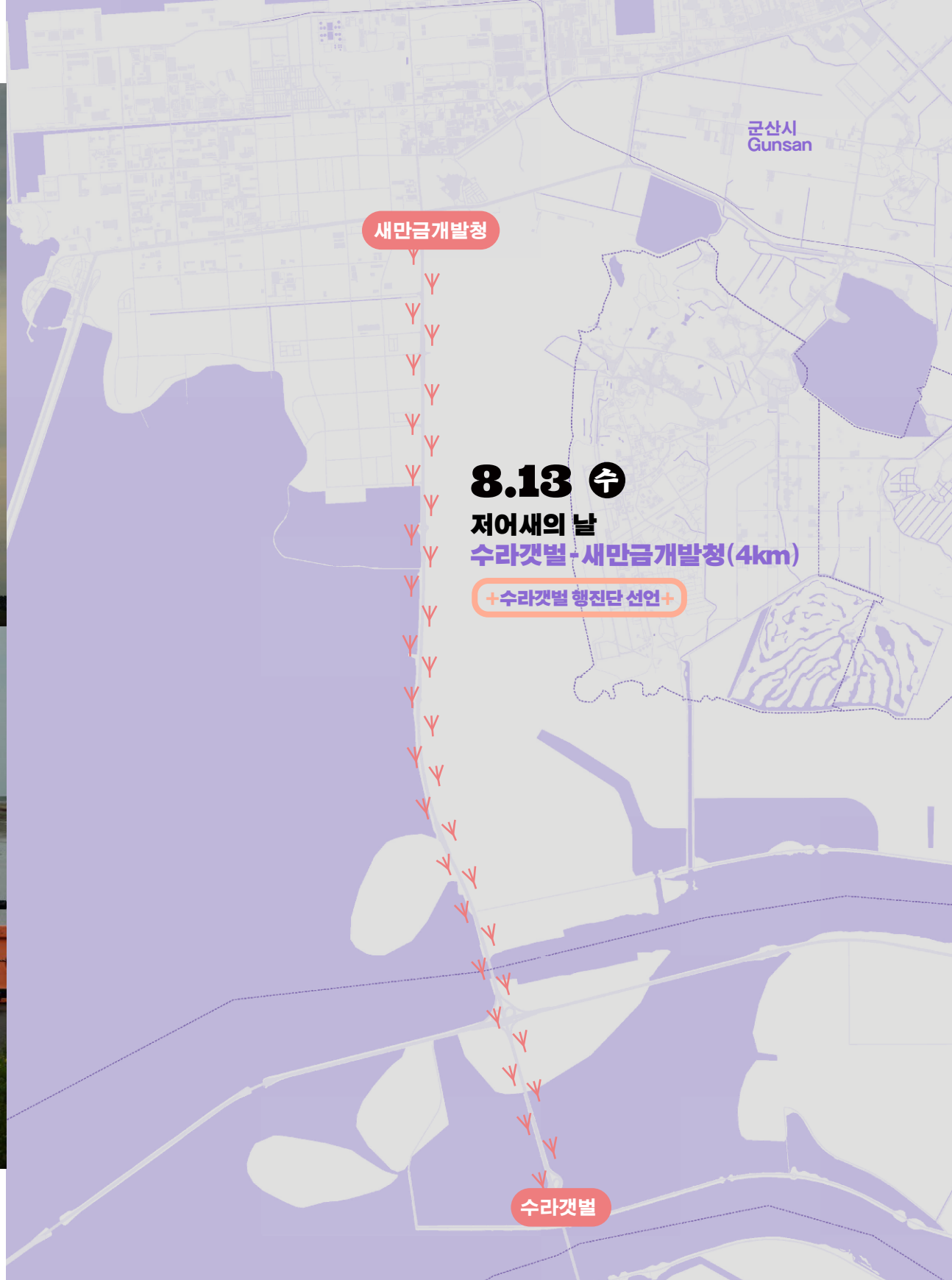
저어새의 날



©TONY



©TONY



저어새의 날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취소소송 판결을 앞두고 우리는 수라갯벌 보존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위해 새,사람행진을 떠납니다. 수라는 생명의 터전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수라갯벌에 신공항을 짓겠다고 합니다. 새만금신공항은 군산공항이 있는 군산미군기지에서 불과 1.3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조류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보다 610배 높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미군기지 확장이자 조류충돌사고라는 비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법원이 생명과 안전의 편에서 수라의 못 생명과 그곳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까지 향하는 발걸음 앞에 수라의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행진 둘째날인 오늘은 저어새의 날입니다.

저어새(Black-faced Spoonbill)는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이 한국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라갯벌에는 저어새가 봄부터 가을까지 머물다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몸길이 70cm로 큰 키를 갖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흰색이지만 얼굴과 부리, 다리는 검은색입니다. 번식기인 초여름에는 머리와 목의 깃털이 노랗게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어새는 다른 새들과 다르게 부리가 넓찍한 주걱처럼 생겼습니다. 갯벌을 휘휘저어 먹이활동을 하는데 이 모습에서 저어새라는 이름도 유래했습니다. 이들은 왜 다른 새들처럼 부리가 뾰족하지 않고 넓적할까요. 과학적으로 진화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대충 저어도 먹이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이들이 서식하는 갯벌 환경이 저어새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었나 상상해 봅니다.

저어새는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천연기념물 보호 정책과는 다르게 서식지는 곳곳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갯벌을 주요 서식지로 삼았던 저어새는 인천 송도갯벌 매립, 새만금 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서식지가 줄어들어 따라 개체수 또한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멸종위기야생동물1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만금 건설과정에서 수없이 사라져간 저어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어가는 새만금 수라갯벌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끈질김과 강인함을 생각합니다. 저어새는 새만금 수라갯벌과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우리는 이들의 경이로운 삶의 여정이 끝나지 않도록 새만금 신공항을 백지화 하고 수라갯벌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행진합니다

법이 큰뿔부리도요를 살릴 수 있을까?

전북지방환경청에서 5개월 가까이 천막농성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그 5개월은 반평생 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폭력들... 생존권을 지키고자 했던 노동자 투쟁,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사상에 대한 억압, 동맹이라는 이름 속에 치외법권적으로 군림해온 주한미군의 온갖 범죄들, 그로 인해 울면서 떠나간 옛동지들...

대추리 황새울 별판의 아름다운 노을과 그 앞 솔밭에 살고 있던 솔부엉이를, 강정 앞바다 구렁비 바위와 붉은발말뚝계를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던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기엔 너무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빛의 혁명을 통해 권력을 얻게 된 이재명정부는 어떨까?

지난 7월 이재명정부는 내각을 인선해 꼴을 갖춰 직무에 들어갔다.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새만금관련 대책회의를 한다는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기 시작하더니, 1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전북지방환경청의 기류가 바뀌었다.

“제발 정치적 개입없이 과학적 사실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공무원이 “새만금 신공항이 생긴다고 100%로 조류충돌이 생기냐” 며 정색을 하고 말한다.

하루 아침에 자연 현상이 바뀐 것일까? 관세울 협상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용인하고 미군기지 증설을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가 개입한 것일까?



수라갯벌 나무의 노래 (feat.완두)
평화바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hQgg3MqB6d8>

제작_미디어로행동하라 영상팀

분명한 건 과학적 사실을 포기하고 정치가 개입해, 법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집행하려는 형식적 절차만 남은 것 같다.

이제까지 그래왔는데 이재명정부라고 무엇이 다르겠느냐만 이곳에 서서 수라를 바라보면 80년이 넘도록 반복되는 비극의 정치를 그냥 앉아서 당할 순 없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난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변방에서 성실한 노동으로 땀을 흘리며 잘못된 세상을 바꾸려는 현장의 동지들을 믿는다.

백지화를 요구하며 1235일째 진행된 천막농성지킴이들, 아침·점심·저녁 선전전을 진행한 동지, 술한 나날을 기록으로 남긴 동지들, 폭염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서각 새김질,

손으로 하나 하나 붙여만든 큰뿔부리도요와 새모자, 한땀 한땀 정성껏 만든 뭍자보, 수라 도감을 고무판에 새기고 어설프지만 흥겨운 풍물과 노동요로 우리를 즐겁게한 팽수,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손수 만든 맛있는 점심과 간식을 준비한 동지,

내가 사랑한 것들은 이미 내 속에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노래로, 학교를 마치면 환하게 웃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화은이를,

비록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 함께하지 못하지만 22년 전 3보1배 길을 걷던 문규현 신부님과 보석같은 동지들과 함께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기쁘게 맞이하며 내 살아있는 동안 수라갯벌을 살리자고 약속할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 ... 우리는 행진합니다.

큰뒷부리도요와 저어새가 되어

20250812 화요일 큰뒷부리도요의 날 전북지방환경청~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만경강 삼례교 8km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전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는 백여 명이 모여있었다. 그중 새들도 있었다. 큰뒷부리도요새,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쇠제비갈매기 등의 모자를 쓴 새사람이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더덕(구중서)의 사회로 새,사람행진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먼저 문정현 신부님이 서각기도를 행진으로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셨다.

“만 4개월 정도 천막 농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환경청에 새만금 신공항 동의하지 마라, 부동의하라.

여기 오자마자 과장님과 경찰서에서도 오셨지만, 그 이후로 단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 사람들은 조건부 동의나 동의하겠구나. 그래서 참 착잡합니다.



나 금년같은 더위, 구십 평생 처음이야. 엄청 더웠어. 내가 1976년도 김해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그보다 여기가 더 더웠어. 아하 그만큼 힘든 일이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수라갯벌 한번도 안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바로 군산 미 공군기지에 인접해 있는 갯벌입니다. 아직도 유일하게 살아있는 갯벌입니다. 도요새와 뭇생명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방조제가 생기면서 우리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미군기지로 확장할 것이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1.4km 떨어진 곳에 활주로 하나 더 만들어서, 기존 활주로와 연결시켜서 미군이 사용하고자는.

새만금 신공항 거짓말이야! 미 공군기지 확장이야! 그래서 말을 못 하고 핑계를 대는 거야. 제주도도 마찬가지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야? 아니야. 해군기지였어. 뭐? 제2공항? 아니야. 공군기지야. 정부는 그렇게 미국 비호를 맞추는 데 주민들을 속여가면서 하고 있는, 바로 새만금 신공항은 미 공군기지 확장, 이걸 위한 거야. 변명할 수 있어? 변명할 수 있느냐고?
(없습니다.)

도요새, 저 뉴질랜드에서 날아와서 여기서 서식하고 살찌워서 저 알래스카로 가는 (수라갯벌이) 그런 통로야. 자연을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고.

전라북도 도민들, 전부 각성하십시오. 방조제 쌓아서 전라북도에 이득된 게 뭐야? 갯벌 없어진 거밖에 뭐 있냐고? 그래서 고창에서 충청도까지 모조리 다 무너지고 위도도 다 무너졌어. 방조제 만들어서 뭐해? 저거 폐물이지. 상시 해수유통, 우리가 부르짖던 거야. 갯벌 썩어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유통하는 거야. 왜 그런 짓거리 하는 거야? 이 멍청한 작자들아.

여기 환경부, 아무 대답이 없어. 그리고 수라갯벌 공군기지 하지 말라고 촉구하는데, 여길 떠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9월 11일에 맞춰서 양재동 행정법원에 가서 이 새만금 갯벌에 공항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판결하라고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지만…… 함께해서 우리 땅을 지키고 우리 갯벌 지키고 미군기지 확장 막아내고 갯벌을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진 내내 큰뒷부리도요를 모시고 갈 알알이(아리오나, 신혜정)가 발언했다. 전문은 다른 지면에 소개될 것이기에 일부만 게재한다.

“저는 이 귀한 행진에 너무 끌려서, 안 오고는 배길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요. 엄청나게 빨라지고 다 우수수 흩어지는 세상에서 함께 느리게 걷는다는 행진의 방식이 귀합니다. 이 인간중심의 사회에서 새를 앞세우는 행진의 틀이, 새가 귀합니다. 여전히 개발이 기본방향인 사회에서 공학 말고 갯벌을 외치는 행진 목적이 너무나 귀합니다.

한 편에서는 새만금신공항을 짓자고 하고, 또 이편에서는 수라갯벌을 보전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더 이상 개발론 대 환경론의 대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발전하고 한쪽은 발전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어떤 발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다른 답입니다. 무엇이 잘사는 것이냐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중략)

이 시대에 우리는 함께 행진하면서 물을 것입니다. 2006년에 새만금의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지 못했던 법이, 이제는 수라갯벌을 찾는 큰뒷부리도요를 구할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법이 큰뒷부리도요를 구할 수 있는 것.

사랑이 멸종위기라는 시대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멸종위기의 생명들이 늘어가는 때에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발전의 길이고,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큰뒷부리도요가, 저어새가, 가창오리가, 검은머리물떼새가, 백합이, 통통마디가, 흰발농게가, 대모잠자리가,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존재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저 혼자만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아닌 존재들과 같이 잘 살 때 비로소 잘 살 수 있다고, 제가 산 시대가 가르쳐주었습니다.

저는 잘 사는 길로 걷고 싶습니다. 수라갯벌이 사는 길, 같이 사는 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연구하고 활동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사회가 변한다는 아주 희미한 희망을 놓지 않고 싶습니다. 이 행진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작고도 아주 큰 희망입니다. 사랑을,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제게는 기적같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새,사람행진을 더덕이 설명했다. 이 행진은 매일 다른 이름으로 진행한다. 첫날은 큰뒷부리도요의 날이었다.

민경으로부터 넬켄라인 댄스를 배웠다.

“수라갯벌의 여러 생물들의 봄여름가을겨울이 온전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와 가지가지(김형우)의 <큰뒷부리도요> 수라의 외침이 있었다. 이어지는 구호에는 새,사람행진의 목적이 담겨 있었다.

이러다 다 죽는다. 새,사람 함께 살자!

조류충돌 못 막는다. 법원은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하라!

새만금신공항은 미군기지 확장이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하라

기후재난 확대하는 신공항사업 중단하라! 법원은 수라갯벌을 지켜라!

공항 말고 갯벌, 전쟁 말고 평화, 자본 말고 생명!

오전 10시 10분, 팽수의 풍물을 앞세워 넬켄라인 댄스로 새,사람행진의 첫발을 내딛었다. 민주노총 방송 차량 뒤로 맨 앞에는 알알이가 자전거로 모시는 큰뒷부리도요 모형과 그 뒤에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현수막을 든 김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대표와 화은이와 문정현 신부님과 김지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있었다. 그 뒤로 백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여러 사람이 사진 촬영을 했고 그중에는 우리가 전주에서 서울까지 모시고

갈 큰뒷부리도요를 제작한 신유아 문화예술활동가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260km 대장정의 첫걸음이라는 무거운 의미 때문이었을까? 시속 3km에 맞춘 행렬 맨 앞의 문 신부님은 지팡이를 짚고 1.2km나 걸으셨다.

4km를 걸어 점심 식사 예정 장소인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멈췄다. 화장실 사용을 해야 하는데 출입증이 없으면 유리문을 열 수 없었다. 사람들은 밖에서 서성이는데 안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를 보아도 문을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때 행진에 함께하던 경찰이 다가와 담당자에게 전화해 문을 열도록 조치했다. 정권이 바뀌었음을 체감했다. 그 정권이 새만금 개발을 그만하기를, 신공항을 백지화시키기를, 수라갯벌을 살리기를 바라본다.

빗방울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4km쯤을 더 가다가 오른쪽 내리막길로 내려갔다. 거기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두 갈래 강줄기 중 하나인 만경강이 있었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로 바다와 쉬이 만나야 할 만경강. 자전거에 실려 온 큰뒷부리도요 한 마리가 그 곁에서 행진 첫날 잠시 머물렀다.



20250813 수요일 저어새의 날 수라갯벌~새만금개발청 4km (누적거리 12km)

수라갯벌이 보이는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 남북로를 달리는 아침이었다. 저 멀리 가마우지 떼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리를 가로질러 날아가고 있었다. 새만금 방조제와 남북로 사이에는 가마우지 떼들이 아침 먹이를 찾아 내려앉아 있었다. 인간이 변화시킨 환경으로 텃새가 되어버린 철새의 모습은 볼 때마다 만감을 불러 일으킨다.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반대편 수라갯벌이 보이는 쪽으로 가보니 대중교통수단이 하나도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 사람들과 진보당원들이 수십 명 모여 있었다.

오전 9시, 딸기의 사회로 <수라의 외침 새,사람 함께 살자 행진단 선언>을 했다.
맨 먼저 완두가 선언했다.

“법이 큰뒷부리도요를 살릴 수 있을까?

전북지방환경청에서 5개월 가까이 천막농성을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그 5개월은 반평생 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폭력들

생존권을 지키고자 했던 노동자 투쟁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사상에 대한 억압
동맹이라는 이름 속에 치외법권적으로 군림해온 주한미군의 온갖 범죄들

그로 인해 울면서 떠나간 옛동지들, 대추리 황새울 벌판의 아름다운 노을과 그 앞
솔밭에 살고 있던 솔부엉이를, 강정 앞바다 구름비 바위와 붉은발말뚝계를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던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기엔 너무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빛의 혁명을 통해 권력을 얻게 된 이재명 정부는 어떨까?
지난 7월, 이재명 정부는 내각을 인선해 꼴을 갖춰 직무에 들어갔다.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새만금 관련 대책회의를 한다는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들렸는데, 1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전북지방환경청의 기류가 바뀌었다.

‘제발 정치적 개입 없이 과학적 사실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공무원이
‘새만금 신공항이 생긴다고 100%로 조류총들이 생기냐며 정색을 하고 말한다.

하루 아침에 자연 현상이 바뀐 것일까? 관세울 협상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용인하고 미군기지증설을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가 개입한
것일까? 분명한 건 과학적 사실을 포기하고 정치가 개입해, 법의 이름으로 발표하여
집행하려는 형식적 절차만 남은 것 같다. 이제까지 그래왔는데 이재명 정부라고 무엇이
다르겠느냐만, 이곳에 서서 수라를 바라보면 80년이 넘도록 반복되는 비극의 정치를
그냥 앉아서 바라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난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변방에서 성실한 노동으로 땀을 흘리며 잘못된 세상을 바꾸려는 현장의 동지들을
믿는다.
백지화를 요구하며 1,235일째 진행된 천막농성 지킴이들,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을
진행한 동지들, 술한 나날을 기록으로 남긴 동지들, 폭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서각 새김질, 손으로 하나하나 붙여 만든 큰뒷부리도요와 새 모자, 한땀 한땀 따 내려간
몸자보, 수라 도감을 고무판에 새기고 어설피지만 흥겨운 풍물과 노동요로 우리를
즐겁게 한 팬수,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손수 만든 맛있는 점心和 간식을 준비한 동지들,
내가 사랑한 것들은 이미 내 속에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라는 노래, 학교를 마치면
환하게 웃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화은이, 비록 건강이 지금은 좋지 않아 함께하지
못하지만 22년 전 3보 1배 길을 따라 걸던 문규현 신부님과 여기 있는 보석 같은
동지들과 함께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기쁘게 맞이하며 내 살아있는 동안 수라
갯벌을 살리자고 약속할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행진합니다.”

듣고 있는데 목소리가 실핏 떨어졌다. 옆에서 보니 가느다랗고 그늘린 그이의 왼 손목이
발발 떨고 있었다. 아니 떨리고 있었다. 오른손으로 그 떨리는 손목을 지탱하려
안간힘을 쓰는 게 보였다. 일생을 바쳐 투쟁해 온 반백의 청춘 완두가 그렇게 떨 줄은



©일곱째별



©일곱째별

몰랐다. 그런데 그 떨림이 아주 소중하게 다가왔다. 그것은 어린 마음, 초심이었다. 수도 없이 해 온 또 다른 투쟁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해도 역시 또 처음인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 긴장과 기대와 그 무엇이었다.

이어 니키와 청명과 나와 다운과 알알이와 더덕과 김연태 대표와 가지가지와 인디와 토니와 오이가 개인 선언을 했다. 모두 8월 12일부터 9월 11일 서울까지 새,사람행진에 전 일정 참가할 이들이었다. 나는 이번 새,사람행진 260km를 걸으면 2017년부터 이어온 도보순례 거리 3,000km를 채울 듯하다는, 그런데 이번에는 각 날짜에 있는 이름의 새와 못 생명이 되어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해남에서 전주 전북지방환경청 천막으로 왔다가 구미 한국유타칼하이테크에 머물고 있는 나무가 왔다. 30여 년 전 바다였던 곳, 수라갯벌이 뒤편으로 펼쳐진 그곳에서 키보드를 연주하며 노래하던 그이가 돌연 흐느꼈다. 어쩌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바다의 울음을 새들은 내내 듣고 있지 않았을까? 바다가 울면 새들도 울 테니까.

저어새의 날이라 저어새 모자를 여섯 명이나 쓰고 있어서였을까? 다운이 수라갯벌에 대한 설명을 할 때쯤이었을까? 황새가 가까이 아주 가까이 날아왔다. 화악작 펼친 대형 날개로 우리를 쓰다듬듯 휘잉 돌아갔다. 잠시 후 가마우지 떼가 수라갯벌 위를 낮게 비행했다. 마치 새들도 우리 행진의 의도를 파악했다는 듯 친구처럼 가까이 다가왔다.

남북로는 중장비 차량이 고속으로 질주하는 위험한 도로였다. 땡벌 아래 그 위험한 도로를 새 모자를 쓴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그사이 지난 7월 30일에 삭발한 오동필 시민생태단장이 온 힘을 다해 수라갯벌의 실상을 토로했다. 그런데 동 시간대 우리의 행진을 의식한 것일까. 하필이면 미군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폭주했다. 새만금신공항의 주목적이 미공군기지 확장임을 드러내듯이.

퇴약벌 아래 쉬지 않고 4km를 걸어서 새만금개발청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스포츠음료와 캔커피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제공처를 알지도 못한 채 음료수를 마실 때였다. 딸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들렸다.

“우리는 시원한 음료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속 시원한 해결책을 원합니다.”

그처럼 시원한 요구가 또 있을까? 행진 내내 방송하던 딸기의 재치와 기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그 음료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제공한 것이었다. 그것이 환대일 리는 없었고 개발을 반대하는 목마른 이들을 대하는 인정이라고 봐야 할까? 마신 음료를 다시 게을 수도 없는 채 새만금개발청이 보이는 맞은편 지점에서 새,사람행진 두 번째 날인 저어새의 날을 마무리했다.







©일곱째별

250816

가창오리의 날



©TONY



©TONY



서천군
Seocheon

8.16 **트** 가창오리의 날 금강호 휴게소-서천갯벌(11.2km)

금강호 휴게소-금강감문교 - 김인전공원주차장1 - 벨리하우스 -
동백대교 아래 (점심) - 한솔제지 맞은편 주차장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서천갯벌

서천갯벌

금강휴게소

가창오리의 날

우리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9월 11일 새만금 신공항 취소소송 선고일에 맞춰 서울까지 향하는 <새,사람행진>을 합니다. 그 발걸음 앞에 수라의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오늘은 가창오리의 날입니다.

가창오리는 시베리아에서 번식을 하고 겨울이 되면 한국을 찾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입니다. 40센치 내외의 작은 크기의 오리로 월동시기에는 천적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만에서 수십만 마리에 이르는 군집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은 가창오리가 천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지어 날아 오르는 모습을 '군무'라하며 황홀하게 감상하지만 가창오리 입장에서는 하루를 안전하게 마감하기 위한 필사의 날개짓일 것입니다.

금강은 가창오리의 대표적인 월동지 중 하나인데 늦은 오후 금강으로 모여들기 시작해 해가 서해안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쯤 20~30만 마리가 무리지어 날아오릅니다. 수십만개의 작은 날개들이 모여 바람을 휘젓는 소리가 고요하지만 힘차게 울려퍼지고 거대한 고래처럼 붉게 노을진 하늘 위를 비상하는 가창오리를 보고 있으면 절로 경건해집니다.

2024년 12월 우리는 무안공항 참사를 목격했습니다. 항공기 조류충돌이라는 초유의 사고로 179명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희생됐습니다. 항공기와 충돌한 조류는 가창오리였습니다. 금강이 주요 월동지 이지만 금강을 따라 충남까지 또 서해안을 따라 고창, 목포까지 이동하는 가창오리의 한 무리가 무안공항

인근 갯벌과 습지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류충돌은 공항반경 13km이내에서 99% 발생하고 있어 13km 이내의 조류충돌위험을 조사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공항 건설은 5km로 반경을 바꾸어 평가해 왔고 무안공항의 경우 이 과정에서 가창오리의 이동과 공항안전의 문제는 누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류충돌사고는 염려는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무안공항참사는 조류의 이동경로에 공항이 지어질 때 벌어질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신공항은 어떨까요? 활주로 반경 13km 이내에 국내 최대 가창오리 월동지가 있고, 20만 마리의 민물가마우지서식지, 그리고 전세계적인 조류 이동 경로 한 가운데가 새만금 수라갯벌로 159종의 조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3km 반경의 조류충돌위험을 조사해 놓고도 5km 반경으로 슬그머니 기준을 바꾸었고 이 과정에서 조류의 수는 1/3이 줄어 109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기준으로 평가기준을 왜곡하고 공항은 안전하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이 650배 높다고 합니다. 무안공항 참사를 앞에 두고 또다른 참사를 예고하는 새만금 신공항을 백지화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서울행정법원이 생명과 안전의 편에서 수라의 못 생명과 그곳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바랍니다.

새, 사람 함께 살자!
새만금신공항백지화하라!



하늘공중에 새가 된 두 사람을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생명의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결합하기전 지금껏 노동운동을 해왔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뜻이 같은 동지들을 알게되고 또 우리보다 열악한 투쟁사업장에 연대하면서 차별을 없애고 같이살자는 평등의 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장을 나온 지금은 보시다시피 환경운동 언저리에 서있습니다.

노동운동 할 때는 자본가와 정권을 상대해서 네가 죽냐 내가 죽냐의 거친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운동하는 동지들과의 생활은 생명을 살리자는 소중한 마음들이 느껴지면서 저 또한 누구를 대적하여 거꾸러뜨려야한다는 마음보다는 자연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자는 이 운동이 너무도 격하게 제 감정을 흔들었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이 건설되면 안된다는 것은 여기있는 우리들 말고도 국토부나 환경부 공무원들도 알 것입니다.

이유들이 차고도 넘쳐서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새,사람행진>을 시작하면서 새와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서울의 하늘과 구미의 하늘공중에 새가 된 두 사람이 떠있습니다.

고진수, 박정혜라는 이 두 분은 새일까요? 사람일까요?

고진수는 185일째 박정혜는 587일째입니다.

고진수는 세종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하다 정리해고 되어 복직을 요구하며 호텔 앞 교통시설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박정혜는 공장이 불타자 생산시설만 평택공장으로 빼돌리고 노동자들은 버리고 도망간 일본기업 니토덴코에게 평택공장으로 고용을 승계하라는 요구를 하며 불탄공장 옥상에 올라가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우리는 이 두 명의 동지도 살려야 합니다.

극단의 이기주의 시대에 우리는 너와 나만 살자는 윈윈이 아닌 더불어 모두가 살자는 홍익생명의 사상을 실천해야 합니다.

수라갯벌도 살리고 해창갯벌도 살리고, 거기에 깃들여 사는 모든 생명들도 살려야 합니다.

운동은 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나아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운동일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지역언론에서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고마웠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는 힘이 났습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신부님을 곁에서 지켜봐왔습니다.

신부님의 서각은 기도이자 실천이었습니다.

신부님의 반의 반만이라도 따라가고자 매일 다짐했습니다.

저부터 힘을 내겠습니다.

우리 기죽지 말고 힘차게 싸워보십시오.

선한 생명들이 지구의 주인인 세상, 선한생명들이 하늘인 세상을 꿈꿉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시는 여러분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일곱째별

250817

검은머리물떼새의 날



©TONY



©TONY



검은머리물떼새의 날



우리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9월 11일 새만금 신공항 취소소송 선고일에 맞춰 서울까지 향하는 <새,사람행진>을 합니다. 그 발걸음 앞에 수라의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오늘은 검은머리물떼새의 날입니다.

수라갯벌에서 소란스러운 뻑뻑 소리가 들려온다면 잠시 뒤 갯벌위에 내려앉은 검은머리물떼새를 만날 수 있습니다. 머리와 등, 날개깃은 검은색이고 배와 가슴은 흰색인데 유달리 붉은 부리와 다리가 인상적입니다. 혼자 다니기 보다는 반드시 둘, 혹은 넷이 함께 다니며 곧고 굽은 부리로 갯벌을 푹푹 찢러 먹이를 찾아 먹는데 단단한 부리로 굴을 떼어먹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검은머리물떼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는 어제 행진단이 걸어온 서천 갯벌에 위치한 유부도입니다. 수라갯벌과 서천갯벌은 하나의 갯벌 권역으로 새들에게는 하나의 서식처입니다.

사람들은 손쉽게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의 서식지가 위협에 처하면 손쉽게 대체서식지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갯벌과 바다, 하늘은 경계를 나눌 수 없습니다. 검은머리물떼새가 무리지어 나는 하늘 위에 경계를 가르고 접근하지 못하게 할 방법을 우리는 모릅니다. 인간이 힘으로 바람을 막을 수 없듯, 하늘을 날아오르는 새들 역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만금 개발로 인해 사라져간 검은머리물떼새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서식지 훼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11일 새만금 신공항 취소소송의 선고를 앞둔 오늘 우리는 서울행정법원이 기후재난의 시대에 생명과 안전의 편에서서 낡은 개발주의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바랍니다.

함께해요 백지화

(후렴) 새만금신공항 함께해요 백지화 새만금신공항 함께해요 백지화

1. 도요새 도와줘 저항하라 저어새
빨 깃 그만 새만금 수라수라 푸르른 수라
2. 8천 년 수라 갯벌 못생명이 우글우글
만경강아 흘러라 바다야 열려라
3. 도요새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새들의 터전 어부의 고향 수라 갯벌 보존하라
4. 갯벌이 죽으면 우리도 다 죽는다
갯벌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
5.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 있어도 듣지 못하네
이러다가 다 죽는다 갯벌을 살리자
6. 조류충돌 위험도 무안공항 610배
대참사 불러올 신공항 절대 반대
7. 자본 말고 생명 전쟁 말고 평화
답은 하나 백지화 신공항 철회하라
8. 기후위기 재난 현실 공항 말고 갯벌
혈세 착취 전쟁 위험 신공항 필요 없다

9. 강물이 흐르는 곳에 못 생명이 우글우글
만경강아 흘러라 바다야 열려라
10. 생태학살 전쟁 위험 새만금 신공항
미군 기지 확장이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11. 숨겨진 건 드러난다 진실로 드러난다
새만금 신공항 대중국 전진기지
12. 대중국 전진기지 미군 기지 확장
방관자도 공범이다 신공항 철회하라
13.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누구의 환경부인가
개발 대신 생태 보존 생명으로 하나 되자
14.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소서
15. 고통받는 자들의 아우성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
생명과 사랑의 외침 공존과 상생의 길
16.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자유의 길 평등의 길
진리의 길 자비의 길 우뚝 서서 씩씩하게
17. 휘몰아쳐라 민중이여 세상을 바꾸자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씨앗

Walking in-between worlds



There are too many holes to count. As I stare into the distance, it seems as if the soil is bubbling. Out from such tiny holes emerge even smaller beings. Crustaceans but ones that are as small as the tiniest pebble on a beach. There are so many - too many to count. I look beyond the horizon, squint my eyes to suddenly see that the holes I've been focusing on stretch across. So much so that it is far beyond my own eyesight. I can only imagine in my mind that such little crabs are there beyond the distance, beyond my reach. I have a strange thought. I wonder if I were to be a crab whether I would think the tidal flat stretches as far as the stars do to the human naked eye. While I cannot know I still ask what is it to live in this world for our crab beings?

As we make our way to Seoul I am constantly reminded of the many worlds that inhabit this planet. Worlds within worlds, and worlds which have passed and ones which have yet been encountered. What is a world to the shorebird? To the cranes? To the venus clam? What temporalities and spatialities do they inhabit? Everyday before the start of our march we learn about a world that isn't like ours. Worlds which aren't dependent on capitalist development, but are often the victims of it. Worlds which are eradicated by humanity's dependency on economic markets, weapons manufacturing, and territorial enclosures. In the wake of the US' never ending wars, including its occupation of South Korea, Sura is one of such worlds that are endangered. I heard that since the construction of the Saemangeum Seawall, ocean water is only let into the tidal flats once a day. The lack of salt water on a tidal flat will not only kill all life underneath it but rot the soil. Many people who have joined the march told me that most of the tidal flat is rotting due to the insufficient amount of

salt water that Sura is allowed to have. Yet, I do not believe that this march is a response to the crises of the end of the world that is Sura. Philosopher Deborah Danokowski critiques the Western assumption of climate crises as one that is a 21st century condition. Worlds have already ended and are ending. So why walk now?

While I cannot speak for everyone, I walk for the simple reason that Sura is still yet alive. That the migratory birds still call the tidal flats their home. That for the millions of crabs the tidal flat remains infinite. I walk to choose life over death, because the value of life cannot be calculated by profits, territory and occupation. To walk in-between worlds has not been easy. The asphalt is hot and the cars that zoom by are a constant reminder that the road is not meant to be walked with our two legs. Yet the unexpected breeze of the wind, the drowning sound of cicadas, and the joy and laughter in-between have never felt sweeter.

250812 큰뒷부리도요

250813 저어새

250816 가창오리

250817 검은머리물떼새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는

새, 사람행진